
제5차 OECD 세계포럼 참가 결과보고

5th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 Transforming Policy, Changing Lives

2015. 12.



목 차

I. 출장개요	1
II. 주요내용	2
III. 세부내용	3
1. 1일차(10.13)	3
2. 2일차(10.14)	8
3. 3일차(10.15)	21
4. 포럼 결론	15
IV. 시사점	16
붙임1: 포스터 발표자료	7
붙임2: 포럼 전경	8

I 출장개요

□ 참가 회의

○ 포럼명 및 주체

- 제5차 OECD 세계포럼*: 정책 전환과 삶의 변화를 위한 통계, 지식, 정책
<5th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Transforming Policy, Changing Lives>

* 웰빙 및 사회발전을 위한 측정과 정책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제1차 포럼(2004년)이 이태리 팔레모에서 개최되었고 제3차 부산포럼(2009년)은 한국에서 개최

* 제5차 세계포럼 사이트 : www.oecd-5wf.mx

- 주 최 : OECD와 멕시코통계청(INEGI)이 공동추최(Jalisco 지방정부 후원)

○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5. 10. 12(월)~10. 17(토)(*참가기간 : 13~ 15일)
- 개최지 : 멕시코 과달라하라

○ 참가 규모

- 각국 정부관계자, 시민사회, 국가통계청 관계자, 국제기구, 언론, 민간부문 등에서 60여개 국 1,400여명 참석

□ 출장 수행 내역

○ 통계개발원에서 작성한 '국민 삶의 질 지표' 포스터 소개(붙임1 참조)

- 제목 :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동향분석실)

○ 웰빙측정 관련 연구동향 파악을 통한 연구 역량 강화

- 삶의 질 측정 및 정책활용과 관련해서 국제적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삶의 질 측정과제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출장자 : (동향분석실) 민경삼(4급), 이희길(5급)

II 주요 내용

□ 포럼 구성

○ 3일에 걸쳐 32개 세션 회의를 진행

- 전체세션 9개, Keynote Speech 3개*, 병행세션 14개, 아침세션 6개 회의

* Enrique V. Iglesias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전 사무국장, 미주개발은행 전 총재), Joseph E. Stiglitz (미국 콜롬비아대, 노벨경제학상 수상), Jose Sarukhan (멕시코 생물다양성 지식·사용 국가위원회의 National Coordinator)

○ (1일차) “사람 중심, 지구 친화” 과제를 만드는 새로운 SDG 아젠다 관점에서 웰빙 제고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소개되고 논의됨

- *How's Life?*(OECD), World Happiness Report가 소개되었고, “다 함께 잘 살자”라는 주제로 살기좋은 도시, 신뢰받는 정부 및 기관, 화합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아이디어 또는 정책 사례를 소개

○ (2일차)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정책 관점에서 웰빙과 불평등을 논의함

- 특히, 1) 인플레이션보다는 실업, 2) 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정책, 3)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가 되고 미래에 부담을 지우는 고이자율을 주제로 경제성장 과실의 분배와 삶의 질의 다양한 차원(일자리, 일-가정 균형 등)에 주목하여 토론
- 개인 웰빙과 불균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고 논의함: 생활기술(Skills for Life), 정신건강(Mental Health), 직업의 질(Job quality), 사회 계층이동(Social Mobility) 등

○ (3일차) 웰빙 측정과 정책 활용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로 논의

- 환경 관점에서의 웰빙, 웰빙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구와 프레임워크, 리턴 아메리카지역의 *How's Life* 계획 등을 토의

III 세부 내용

I 1일차(10.13)

◆ 환영사

(1) Angel Gurría (OECD 의장)

- (진단) 세계는 경제위기로부터의 극복, 증가하는 불평등,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시급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
- (대응) 웰빙의 개선이 OECD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었고, SDG의 달성에 중요한 파트너의 역할 수행

(2) Eduardo Sojo (INEGI 청장)

-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정부, 의사결정자가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
- 멕시코 통계청(INEGI)에서 도입한 새로운 웰빙 지표, 녹색 GDP, 비임금 근로, 문화, 직업의 질, 신뢰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들은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았으나 최근에서는 중요하게 간주됨

(3) Sandoval (Jalisco 도지사)

- Jalisco 지방의 인상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수치를 넘어 웰빙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특히 불평등에 주목하여 빈곤과 박탈이 존재한다면 경제적 성공을 언급하기 힘들기 때문에 웰빙에 우선순위를 부여

◆ 2015년 이후 모두를 위한 웰빙의 성취(Achieving well-being for all in a post-2015 world)

(1) Enrique Iglesias (IADB 전의장)

- 성장 그 자체보다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역설함. 현재의 생산과 소비 방식으로는 지구가 견뎌내지 못하므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
- 정책결정자에게 세가지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
 - 1) **(교육의 질 강조)** 지식뿐만 아니라 연대, 관용, 포용 같은 가치를 교육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도록 함
 - 2) **(정부 효율성 강화)** 민간부문의 요구를 민주적 정부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의 효율성 강화
 - 3) **(영역간 신뢰강화)** 발전이 든 사람의 웰빙을 의미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공적 영역과 민간부문의 신뢰 강화

◆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 전환(Transforming policy and behaviour to improve lives)

○ 정부대표자(3명)

(1) Antonio Meade(멕시코 사회개발장관)

- 발전목표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웰빙측정의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빈곤과 박탈에 대응하는 성공적 정책을 위해 세 가지를 중시
 - 1)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간의 상호 협력, 2) 빈곤은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범부처간의 관계구축이 필요 3) 목표 인구 및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채택

(2) Bjarni Benediktsson(아이슬란드 재정경제부 장관)

- 아이슬랜드 복지의 강건함과 사회포용 정책의 강조로 인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의 웰빙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경험을 설명함.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3) Sandoval (Jalisco 도지사)

- 지방정부의 관점을 대표하여 웰빙을 잘리스코 지역 정책의 중심에 둔 기본원리를 설명
- 여기에는 사람의 웰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건강·교육 및 경제적 기회에서 불평등의 축소, 부패와의 전쟁 및 법치의 강화,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통합의 강화와 직접 연계됨을 인식

○ 비정부대표자(3명)

(1) Gus O'Donnell(Frontier Economics 회장)

- 영국에서 웰빙 의제에 대한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부문에서 웰빙 의제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자사의 고객과 근로자의 웰빙을 개선하는 것이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정부와 시민사회가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
- 웰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는 기본틀을 제공하며, 여기서 도전과제는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하는 것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임

(2) Obed Louissaint(IBM Watson 부회장)

- 기업이 다른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하나의 이해당사자만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피고용인, 고객, 투자자,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간에 균형잡힌 선택이 필요

(3) Nishant Lalwani(Global Innovation Fund 부회장)

-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웰빙 개선에서 기금의 역할과 관련해서, 세가지 핵심요소를 강조. 1) 공동 목표를 향한 정부와 사회행위자 간의 상호협력 2) 혁신을 도출하기 위한 상이한 섹터와 기금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유연성 3)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강조

◆ 2015년 판 How's Life? 보고서 소개

- 성장보다 사람들의 웰빙에 초점을 둔 OECD 국가의 웰빙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How's Life 2015 발간
- 이번 보고서의 세가지 주요 결과는 1) 저소득층 자녀가 다양한 층도에서 낮은 웰빙 수준을 보여, **어른들간의 불평등의 증가로 아동이 큰 대가를 치루고 있음** 2) **자원봉사의 웰빙 제고와 관련해서, 공동체의 웰빙과 자원봉사자의 웰빙이 모두 개선됨** 3) 사회에서 인구집단간 웰빙 분포와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웰빙에서 불평등이 강조됨**

◆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행복 도입방법(How does Happiness fit in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1) Richard Layard

- 빈곤 국가에서 조차 소득은 삶의 만족도의 일부만을 설명하므로, SDGs에서 삶의 만족도는 포괄적인 목표로 설정되어야 함
- 모든 정책에서 지출단위당 삶의 만족도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측정은 비용편익 분석에 체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2) John Helliwell

- 주관적 웰빙 측정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많은 웰빙의 추동요인의 중요성을 반영하므로 중요함
- 주관적 웰빙은 다양한 서베이 형태로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특히 삶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

- 영국에서 사람들의 고통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 싱가포르의 교도소 개혁 설계 사례에서 주관적 웰빙의 측정의 정책적 가치는 입증됨

◆ 살기좋은 도시(Liveable cities)

- 정부대표자와 시민사회와 함께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 도시의 상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

(1) Ellis Juan

- 라틴아메리카 도시(55개)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삶의 질,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에 대한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
- 3개 차원(환경 및 기후변화, 재정 책임성과 좋은 거버넌스, 도시화)에 초점을 맞춘 지표를 개발하여 도시범위 확장을 예측하고, 인프라 투자 계획 수립을 지원
-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계획수립과, 인프라·물과 물관리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세금제도의 강화의 중요성을 결론으로 강조

(2) Carlos Medina

- 지방정부의 투명성, 효율성, 공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존재함을 언급
- 이 규범이 시민과 정부에게 경제적 목표와 제도적,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를 위해 협력의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음

(3) David Lammy(영국)

- 계도 및 아동 발달에 있어 공간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양질의 주거가 부족한 런던에서 정치인으로서 경험에 따르면,
- 불평등과의 전쟁을 위한 도시 내부 고용의 창출과 주거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신뢰할만한 정부와 제도(Trustworthy government and institutions)

- 좋은 거버넌스와 신뢰가 무엇이고, 이는 측정가능한가에 대해 논의

(1) Marta Lagos(칠레, 라틴 바로미터 설립자)

- 134국에서 측정된 사회조사와 바로미터 자료를 활용하여, 타인신뢰와 제도신뢰를 분석하여, 제도신뢰의 동인으로 경제성장, 소득과 부의 불평등, 투명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사회에서 부패와 차별, 정책목표, 공공제도의 대표성을 지목

(2) Juan Pardinás

- 멕시코에서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의 차이에 주목하여, 그 원인으로는 깨끗한 리더쉽, 명징한 절차, 공무원 인사에 대해 능력주의 여부가 영향을 미침

② 2일차(10.14)

◆ 모두에게 번영이 공유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 공유된 번영은 개인간, 사회집단간 다양한 자산의 분포를 의미하며, 불평등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세계화, 기술, 새로운 규범과 정치제도와 같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여러 원인이 존재

- (Stiglitz) 유사한 경제제도를 가진 나라도 불평등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정책으로 인해 이런 차이를 가져온 것임

- 30년간 어떤 국가는 세금축소 및 시장자유화로 불평등이 강화된 반면, 어떤 나라는 불평등이 감소

- 불평등은 정책에 의해 조정가능하며, 번영은 공유가능함

◆ 생활의 기술(Skills for life)

- 전통적인 교육과 함께 아동의 정서적 및 사회적 기술 발달의 필요성을 논의
 - 복원력과 관계구축 기술의 강화는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 자존감과 행복을 향상시키고, 집단적으로는 범죄감소, 민주적 참여와 개인간 신뢰를 높이며 경제 기반을 개선시킴
- (Alejandro Adler) 긍정교육을 통한 부탄의 행복 개선 사례
 - 교육을 통해 행복(GNH)이 증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증
 -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동정심, 문제해결 등에 대해 15개월 동안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긍정교육(positive education)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사전사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비교에서 학업 성적, 결석 감소 등 유의한 차이가 발생
- (Francisco Marmolejo)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고용주가 요구하는 교육간의 불일치가 발생
 - 노동시장에서는 팀으로 일하는 능력, 다문화 상황에서 일하는 능력, 전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과 같은 정서적 기술 강조

◆ 정신건강(Mental health)

- 정신건강을 다루는 정책적 대응방법과 측정방법 개선에 대해 논의
 - (Rechard Layard) 비용효과 측면에서 보면 웰빙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한 정책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것임. 영국 정부의 “심리치료 접근성 제고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개입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줌
 - (Nils Fietje) 자살은 아동의 두 번째 사인이고, 우울증은 전세계 질병의 4.3%를 설명하며, 정신장애로 인해 2011-2030년 사이에 16.3조\$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Ruben Alvarado)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의 양과 적절성, 그리고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와 함께 치료의 경제적인 비용효과 대한 증거를 강조

◆ 직업의 질(job quality)

- 직업의 질이 중요한 이유와 정의, 정부와 회사는 어떻게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웰빙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 (Sandrine Cazes) OECD 직업의 질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며, 직업의 질을 세가지 차원(소득의 질, 노동시장 안정성, 근로환경)에서 접근
 - (Sangheon Lee) ILO는 정책실행에 초점을 맞춰, 직업의 질 쟁점이 중요하나 이를 개선하는 것의 어려움을 지적함
 - (Keld thornæs) ‘직업의 질’을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원으로 간주해야 함

◆ 불평등 증가의 함의는 무엇인가?

-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가?
 - OECD의 지난 십여년간 자료를 보면 속도와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이나 일부 부유한 국가로 보면 완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소득의 불평등만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
- 소득 불평등 외의 다른 불평등은 어떠한가?
 - 기회의 불평등도 매우 중요함.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아동)은 그 자체로 그들의 운명(성인)을 결정. 따라서 불평등 분석시 세대간 이동 쟁점을 다루는 것이 중요
 - 사람들간 차이보다 지역간 불평등을 강조하거나 혹은 인구집단, 동료 집단(cronyism)간 차이를 강조하는 사례도 있음

○ 실제에 대비해서 볼 때,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사람들은 자산을 중산층으로 귀속시키는 경향이 있고, 인식은 객관적 사실만큼이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최상류층에 대한 이용가능한 통계가 없다는 점 등이 이러한 인식의 대부분을 설명 가능

○ 불평등을 다룰 적절한 혼합 정책은 무엇인가?

- 교육, 건강과 노동정책 뿐 아니라 재분배 정책과 세금제도의 누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불평등의 근원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정책(예, 독점 지대 제거)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음

◆ 사회적 계층이동

- 멕시코의 최근 사회조사에 의하면, 계층 이동율이 낮고 교육이 사회 경제적 불리 여건을 극복하는 역할을 하지 못함. 따라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제도가 필요하고 또한 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한 직업 창출이 요구됨
- 영국에서는 사회적 장벽에 의해 계층이동이 어려움. 교육성취의 지역적 격차는 사회적 성취의 결과물임. 사립학교의 학생이 받는 장점은 노동시장으로 계속 이어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다 투명한 선발절차를 따르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의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
- 소득불평등과 기회불평등과의 관계에서 사회계층 이동을 개선하는 정책은 기회불평등 개선에 주목하나, 역으로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면 기회불평등도 악화될 수 있음

③ 3일차(10.15)

◆ 발전 측정에서 전략적 도전과제

- 지난 10년간 전체사회 및 공동체의 발전에 관한 지구적 운동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쟁점 제시
- 지난 10년간 보다 공동체 기반의 측정체계에서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도 공감을 표하며 ‘지구적 운동’으로 확산됨(EU, World Bank, UN SDGs 등)
- 향후 10년간의 5가지 전략적 쟁점을 제시 1) ‘Beyond GDP’ 운동과 SDGs의 결합 2) 추진되어 왔던 GDP 측정에 대한 비판, 개선 및 향상의 실질적인 업무 지속 추진 3) 새로운 측정에서 정책으로의 전환 4) 사회발전 측정의 국제적 표준 개발 5) 발전과 이에 대한 측정에 대한 전세계적 연구센터 설립을 통한 세계적 연구와 실행의 조정

◆ 지구에서 사람의 웰빙

- 미래세대의 웰빙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웰빙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
- (Katherine Trebeck) 기후변화는 빈곤감소,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미시적 접근, 지속가능한 혁신에 공동체 참여의 발전을 위협함. 따라서, 성장 VS 지속가능성의 논의에 지역의 인구집단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
- (Helen Mountford)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정보제공으로 필요한 개혁에 대해 대중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Francesco Gaetani) 녹색경제에 대한 투명성이 더 필요하며, UN이 추진하는 Open platform이 환경정보에 대해 정부와 시민에게 공개되는 효과를 기대

◆ 새로운 정책도구와 프레임워크

○ 정책결정에서 웰빙자료의 적합성과 증거기반 정책 실행의 도구에 대해 논의

- (Yuval Laster) 이스라엘에서 웰빙 측정 경험에 기초하여, 5가지 주요 요점을 제시

- 1) 자료의 수집, 제시 및 해석에 관계된 정확한 이해관계자 확인
- 2) 추진과정에서 저명한 정치인을 후견인으로 활용
- 3) 웰빙의 영역별로 소관부처를 지명하여 시작단계에서 책임관계를 명료화
- 4) 정기적인 정부 분석보고서 작성
- 5) 지표를 정부 계획수립에 통합함으로써 장기 및 단기적인 계획에 반영

- (Ulla Rosenstrom) 핀란드의 Findicator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소개. 해당부처는 우선순위를 선택하여 지표를 활용한 성취를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1) 우선순위 지표(25~30개 지표)를 선정하여 2) 단순하고 요약적 형식의 정기적 보고서 작성 3) 데이터의 시의성과 예측 능력도 매우 중요

◆ 웰빙 정책을 위한 행동 관점(Behavioural insights for well-being policy)

○ 행동경제학의 통찰력을 사람들의 웰빙 개선에 적용하는 방안 토론

- (Alissa Fishbane) 개인행동과 관계된 적은 정책 비용의 변화로도 큰 행동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예, 은퇴저축계획 등), 정책은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Anna Fruttero) 행동을 고려할 때 3가지 요소가 중요하며, 이를 고려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가용한 도구도 확장될 수 있음

1)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행동하며, 모든 가능한 선택에 대해 비용편의 분석을 하지 않음

2)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침

3) 사람들이 실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들의 문화에 의존함

- (Paul Litchfield)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이 아닌, 선택에 있어서 경험적이고 심리학적,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방법이 중요

예)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과시소비가 증가하여 부자가 특정 재화를 필요이상 소비하고 가난한 사람이 이를 따라하게 되면, 왜곡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 사회의 복지가 후퇴하게 됨

4 포럼 결론

◆ Martine Durand

- (평가) 제4차 인도 뉴델리 포럼이후 웰빙에 대한 이해에서 세계적으로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발견되나, 정책에 적합한 측정, 웰빙의 개선 동인과 인과적 경로에 대한 개선된 연구, 측정과 정책에서 모범사례의 축적에 여전히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1) 지난 3년간 중요한 변화로는 웰빙을 정책의 핵심의제화 한 것임
 - 예) 지구적 차원에서 SDG 의제, 국가차원의 다양한 프로젝트,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프로젝트
 - 웰빙 접근은 다양한 영역(교육, 정신건강, 거버넌스 등)과 불평등, 지속가능성과 같은 범영역(cross-cutting issues)에서도 나타남
- 2) 전통적인 경제정책 목표와 웰빙간의 관계가 상호 상쇄(trade-offs) 관계보다는 오히려 상호 윈윈(win-win)하는 관계로 밝혀짐
- 3) 주관적 웰빙,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직업의 질, 환경과 경제 계정과 같은 영역에서 웰빙측정의 발전이 이루어짐
 - 수준과 깊이가 있는 자료의 생산으로 웰빙의 산출이 개인, 인구 집단,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 4)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사회적, 정서적 기술, 신뢰와 협력, 문화와 공동체 가치)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영역 제시
- (향후과제) 6차 포럼과 관련해서 3가지 해결과제 제시
- 1) 웰빙의 관점에서 정책 경험에 대한 엄격하고 비교가능한 평가를 개발하여 진보(progress)를 통합하는 것
- 2) 자료 생산자와 이용자, 정책과 시민사회, 국가간, 연구간, 데이터와 정책공동체간의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
- 3) 보다 나은 정보로 보다 나은 정책, 그리고 사람과 지구에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

IV 시사점

- (전반적 인상) '웰빙의 측정에서 정책으로' 나아가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웰빙측정 및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지점과 인과적 경로에 대한 모범적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연구결과의 축적도 미흡한 수준임
 - 실제 구체적인 삶의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고 그 효과도 아직 체계적으로 측정되거나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 '웰빙의 측정에서 정책으로' 나아가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이런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이 모니터링은 필요
- 핀란드(Findicator), 이스라엘 사례와 같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특히 우리의 경우도 국민 삶의 질 지표가 모두 공개될 예정으로 정책활용 선행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
- 주최국인 멕시코가 32개 주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Better Life Index를 작성하여 전시한 것은 매우 인상적임
 - * 영역별로 실제 값들을 표준화하여 지역별 지수를 작성
- ※ 한국도 수집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별 삶의 질 지수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붙임1】 포스터 발표자료

□ 자료1 :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동향분석실)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Korea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in KOSTAT

1. Background


- > Limits of GDP-based economic indicators → beyond GDP
 - Research on how to complement the shortcoming with social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Does GDP reveal only material conditions of its people?)
- > Increasing importance of QoL(Quality of Life) as a policy target
 - Newly-emerged issues such as continuous low fertility rate, intensifying social conflicts, and spread suicide rate
- > International effort to measure QoL and social development
 - OECD Hows Life(QoL)
 - Australia, UK, Canada, and Japan

2. Concept

- > Quality of life(QoL) : welfare and happiness (well being?)
 - Indirect measurement (Barnett-based approach)
 - "If the people in a certain group are allowed to enjoy higher lifestyles in terms of food, dwelling, security, freedom and human rights, their overall quality of life goes up as well."
- > A group of elements that add values to life
 - Life elements that determine subjective sentiment such as satisfaction, stability or happiness
 - Objective living conditions such as income, consumption, employment, housing and health
 - QoL elements are identified in the context of personal, social relationship and surrounding environment

3. Measurement Framework of QoL

Measurement Mandate: three dimen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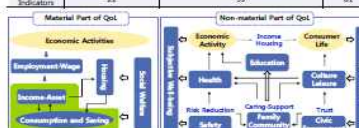
Dimension	Target
Personal	Capable Individual
Social Relation	Energetic and Mutually-Caring Community
Environment	Saf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Dimensions

- > **Personal** : A 'capable individual' who is educated as a knowledgeable worker, enjoys financial stability and welfare, and leads healthy life
- > **Social Relation** : An 'energetic, mutually caring community' which achieves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via active participation, and allows its people to savor culturally-enriched life through leisure activities
- > **Surrounding Environment** : A 'safe and sustainable environment' which guarantees the secured life for generations by eliminating potential risks in the living environment and maintaining the natural environment
- > **Level of QoL** : depending on the significance and its changing rate of each QoL element in the three dimensions above
 - Confirmed by each individual's subjective assessment

4. Indicator Structure of QoL


Objective Status	22 Areas		Well-being Objective Indicators 57
	Material Part 14	Non-material Part 8	
Income/Consumption/Asset	Health	Culture/Laure	Subjective Indicators 24
Employment/Wage	Education	Child Engagement	
Social Welfare	Subjective Well-being	Safety	QoL Indicators 22
Housing	Social Relation	Environment	
			81



Part	Area	Indicator
Material Part	Income, Consumption and Asset	GDP per capita, adjusted median income, adjusted median consumption, average net household asset, Gini coefficient, relative poverty rate, income satisfaction index, consumption satisfaction index
	Social Welfare	public pension recipient rate,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to GDP, elderly medical expense ratio
	Employment and Wage	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average annual income of workers, working time, proportion of low-paid workers, job satisfaction index
	Housing	average year capita rate of residential floor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commuting time to school or office, housing cost, housing expenditure satisfaction index
Non-material Part	Health	life expectancy, high blood pressure prevalence rate, diabetes prevalence rate, subjective health evaluation, stress self-management index
	Culture and Leisure	citywide rate, voluntary/mandatory physical activity rate, average leisure time, leisure satisfaction index, perceived lack of time
	Child Engagement	average meal days per person, participation rate in culture, art and sports events, ratio of consumption expenditure on culture or leisure activities, voting rate, perception of political empowerment
	Environment	voluntary work participation rate, labor consciousness, education expenditure, participation rate in community
	Education	high school completion rate, public expenditure per person in R&D, climate change mitigation index, subjective environment satisfaction index
	Family and Community	average country rate, greenhouse gas emission, life cycle water participation rate, waste recycling rate
	Safety	predicted enrollment rate,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tertiary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dropout rate in school, gradu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university-based STEM training,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efficiency of school educa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index
	Subjective Well-being	contact frequency with family,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index, independence, household size, life-satisfaction index, suicide rate, social network, network participation rate in social activities,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violent crime rate, self-reporting crime rate, crime victim rate, robbery safety perception, crime-witnessing safety, support
		road casualty rate, safety accidents-induced child death rate, medical accident rate, number of the accident
		the satisfaction index,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5. Services of QoL Measurement

Official QoL Website: <http://qol.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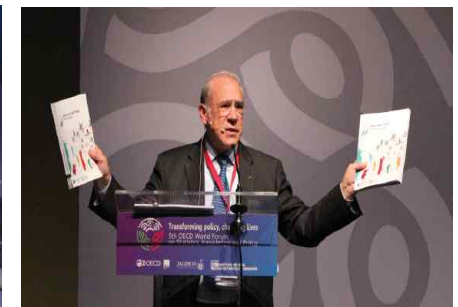
통계청 5th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 Transforming Policy, Changing Lives. Guadalajara, Mexico (October 13-15, 2015)

【붙임2】 포럼 전경

□ 로고 및 개회



□ 병렬세션



□ 병렬세션



□ 병렬세션



□ 포스터 세션(통계개발원 포스터)

